

홍명보호 새내기들 A매치 데뷔전서 '중국 압도'

동아시안컵 남자부 1차전 중국에 3-0 승... '변형 스리백' 전략 성공 김봉수·강상운·이호재 등 출전... "다음 경기에도 젊은 선수들 점검"

무려 6명의 새내기가 A매치 데뷔전을 치렀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K리거와 J리거의 시합대로 삼은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을 통해 2026 북중미 월드컵에 함께 대령할 경쟁력 있는 자원을 발굴할 수 있을까.

홍명보 감독은 7일 경기도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동아시안컵 남자부 1차전 중국과의 경기에서 6명의 새 얼굴을 내세웠다.

김봉수(대전)는 자신의 첫 A매치를 선발로 치렀다.

김봉수는 지난해 11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5, 6차전에 나설 대표팀 명단에 포함돼 생애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다는 영광을 안았지만, 막상 그라운드는 밟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FIFA가 정한 A매치 기간이 아닌 탓에 K리거와 J리거로만 구성된 이번 동아시안컵 명단에 다시 이름을 올린 김봉수는 기다리던 A매치 데뷔 기회를 잡았다.

그는 3선 왼쪽 날개에 배치돼 2선의 문선민(서울), 풀백 이태석(포항)과 패스를 주고 받으며 측면에 활로를 뚫는 역할을 담당했고 상대 수비 사이로 공을 찰라 날리며 공격 작업을 풀어 나갔다.

또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김진규(전북)와 함께 빌드업 과정의 중심을 잡으며 좌우 수비수가 보다 공격적으로 치고 나가는 '변형 스리백'을 시험해 본

한국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에 일조했다.

홍명보 감독은 후반 19분 주민규(대전)와 문선민 대신 이호재(포항)와 강상운(전북)을 투입하는 변화를 줬다.

이호재와 강상운 역시 처음으로 A매치 데뷔전을 치렀다.

주민규가 골 결정력뿐만 아니라 2선으로 내려와 수비와 등을 지고 공을 지켜내며 박스 내의 동료에게 연계하는 플레이에 능하다면, 이호재는 191cm의 큰 신장을 바탕으로 상대 수비와의 몸싸움에서 강점을 보이고 고공 플레이에서도 쓰임새가 있다.

다만 첫 A매치인 만큼 슛 찬스에서 다소 긴장한 모습도 보인 이호재는 남은 홍콩, 일본전에서 득점 포로 확실한 눈도장을 찍어야 9월부터 이어지는 A매치에서도 계속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호재는 현역 시절 '캐년 슈터'로 불렸던 아버지 이기형 연변 룡딩(중국) 감독으로부터 활동량을 높이라는 조언을 받았다고 전하면서 "이태석(포항)과 이동경(김천) 등이 만들어준 찬스를 골로 연결하지 못해 아쉽다"고 자평했다.

K리그1 전북 현대의 고공비행에 큰 지분을 차지하며 주가를 올리고 있는 강상운 역시 조금은 힘이 들어간 모습이었다.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며 활발하게 그라운드를 누빈 한편, 후반 22분과 28분 문전에서 맞은 절호의 득점 찬스에서 크로스를 넘겨가는 슛을 한 뒤 크

게 아쉬워했다.

강상운 역시 경기 뒤 "힘을 빼려고 했는데도 자연스럽게 몸에 힘이 들어가더라. 찬스를 살리지 못한 부분은 반성하고,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성장해야 할 것 같다"고 돌아봤다.

후반 29분엔 강원FC 듀오 모재현과 서민우가 김문환(대전)과 김봉수 대신 그라운드를 밟으며 A매치에 데뷔했다.

연령별 국가대표도 경험한 적 없는 모재현은 홍명보 감독의 부름을 받아 생애 첫 태극마크를 달았고, 우측 윙백 자리에서 데뷔전을 치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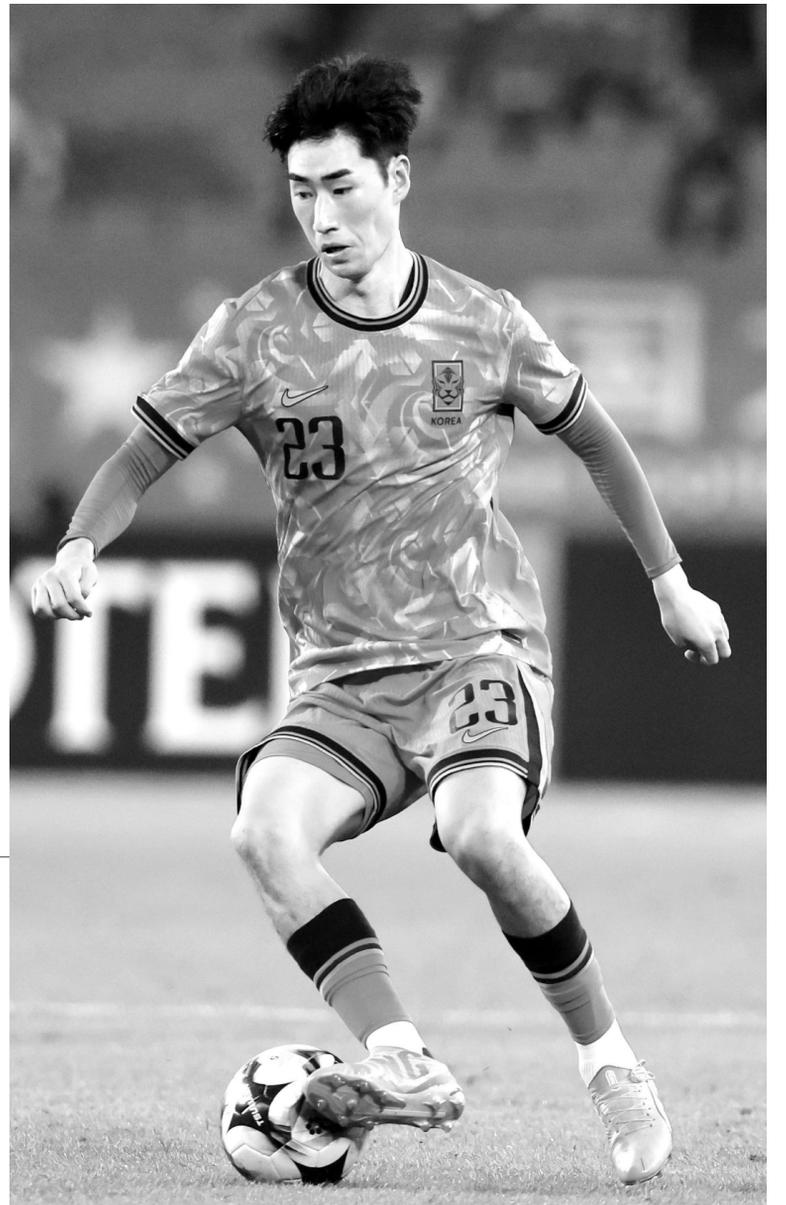
서민우는 하프 라인 부근에서 상대의 수비 라인 두 줄을 한 번에 통과하는 수준 높은 킬 패스로 공격에 힘을 실었고, 수비에서도 적극적인 몸싸움과 파울로 상대 흐름을 끊어내며 제 역할을 해내 존재감을 드러냈다.

후반 40분엔 20세 이하(U-20), 23세 이하(U-23) 대표팀 등 연령별 대표팀에서 이름을 알린 이승원(김천)도 고대하던 성인 대표팀에서 첫선을 보였다.

무려 6명의 새 얼굴에게 기회를 준 홍명보 감독은 11일 홍콩전, 15일 일본전에서 또 다른 신임 선수들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직 변준수(광주), 김태현(가시마), 서명관, 조현택(이상 울산), 김태현(전북), 정승원(서울)과 골키퍼 김동현(인천)은 A매치 경험이 없다.

또 2년 만에 태극마크를 다시 단 나상호(마치다), 장신형 타깃 스트라이커 자원 후보인 오세훈(마치다)을 비롯해 기존의 포백과 이변에 새로 선보인 변형 스리백에서 시험해 볼 젊은 수비 자원의 기량과 전술 적응력도 확인한다. /연합뉴스



서민우가 지난 7일 경기도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년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중국과의 경기에서 후반 교체 멤버로 들어가 드리블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체중 윤찬영 400m '50초' 벽 깨고 백제왕도 육상대회 금

개인 최고 기록·대회 新 경신 광주·전남 선수들 메달 행진

광주·전남 선수들이 2번째를 맞은 백제왕도 익산 2025 전국육상경기대회에서 새 기록을 만들며 메달 행진을 펼치고 있다.

전남체중 윤찬영이 남중부 400m '50초' 벽을 깨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윤찬영은 지난 7일 전북 익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대회 400m 결승에서 49초68에 질주를 끝냈다.

지난 5월 소년체전에서 50초31로 은메달을 획득했던 윤찬영은 자신의 최고 기록을 단축하면서 대회 신기록과 함께 금메달을 차지했다. 49초68은 부별 10위 기록이다.

전남체중 오승우 코치는 "50초에서 49초 벽이 있다. 중학생한테는 어려운 부분인데 그걸 넘어서 금메달을 획득해서 기쁘다"며 "찬영이가 지구력이 조금 부족했었는데 그 부분을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조깅을 많이 했다. 그런 노력으로 지구력을 키우면서 좋은 기록을 만든 것 같다. 앞으로도 더 발전할 수 있는 선수이다.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광주체중 윤준호는 남고부 높이 뛰기에서 2m05을 뛰어오르면서 새로운 대회 기록 주인공으로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섰다.

여대부 멀리 뛰기에서 출전한 조선대 박강빈도 마지막 6차 시기에서 5m31을 기록, 영남대 김수연(4m82)에 앞서 대회 새기록으로 1위에 올랐다.

광주체중 강요한은 앞서 6일 열린 남중부 멀리뛰기에서 6m49라는 새로운 대회 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메달 행진도 이어졌다.

여중부 100m 허들 경기에서 광주체중 김아인이 15초12로 인화여중 김선희(15초76)에 앞서 가장



전남체중 윤찬영(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7일 열린 백제왕도 익산 2025 전국육상경기대회 400m 결승에서 49초68의 대회 신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한 뒤 2위 정화영(천안오성중), 3위 박인석(이리동중)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체중 제공>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신윤아-안예지-김지은-손예원이 호흡을 맞춘 광주체중은 여중부 3200m 계주에서 10분 18초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여고부 400m 허들에서는 전남체고가 나란히 1·2위에 올랐다. 신규리가 1분5초03로 금메달, 윤재리가 1분7초47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여자 고등부 멀리 뛰기에서는 광양하이텍고 서예지가 5m57의 대회신기록 기록했다. 하지만 전북체고 강서영이 5m60으로 경기를 끝내면서 대회신기록을 바꾸고 금메달을 가져갔다.

남고부 3200m 계주에서 전남체고 전유찬·최정유·김나호·임의환이 은메달을 합작했고, 여고부 포환던지기에서 나선 전남체고 문혜솔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진도군청 이서빈은 여자일반부 1500m에서 2위에 올랐다.

전남체중 서민준·김주호·홍준상·김강석이 출전한 남중부 3200m 계주, 목포하랑중 김태빈이 나선 여중부 원반던지기, 전남체고 최예서가 나선 여고부 장던지기에서도 동메달이 나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토트넘 "캡틴 SON 생일 축하"... 거취는 '안갯속'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토트넘 홋스퍼가 33번째 생일을 맞은 손흥민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토트넘과 계약기간이 1년 남은 손흥민의 미래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토트넘은 8일 구단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손흥민의 생일을 축하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캡틴, 레전드, 손흥민의 생일을 축하합니다'라고 적었다. 우리시간으로 이날은 손흥민의 33번째 생일이다.

손흥민은 2015년 8월 독일 레버쿠젠을 떠나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뒤 10시즌을 보내는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만 333경기를 뛰고 127골 71도움을 기록하며 구단의 상징과도 같은 선수가 됐다.

2018-2019시즌에는 토트넘을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려놓았고, 2020년에는 세계에서 한 해 동안 가장 멋진 골을 넣은 선수에게 주는 국제축구연맹(FIFA) 푸슈카시상을 받았다.

2021-2022시즌 23골을 터트려 아시아 선수

최초의 EPL (공동) 득점왕에 올랐고, 주장으로서 2024-2025시즌에는 토트넘이 UEFA 유로파리그 정상에 올라 17년 만에 메이저 대회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데도 힘을 보탰다.

지난 1월에 토트넘이 계약을 1년 연장하는 옵션을 실행하기로 해 손흥민은 일단 2026년 여름까지는 팀에 남을 수 있게 됐다.

그렇지만 손흥민과 토트넘의 동행이 계속되리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토마스 프랑크 감독이 새로 부임해 새판짜기에 들어간 데다 '상업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구단의 계산과 맞물려 손흥민의 이후 행보에 관한 다양한 전망이 영국 현지에서도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의 로스앤젤레스(LA) FC가 올리비에 지루(릴)의 이적에 따른 대체 선수로 손흥민을 강하게 원했지만, 손흥민이 이를 거절할 것이라는 영국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

토트넘은 이달 말부터 9월 초에 홍콩을 거쳐 한 국을 방문하는 아시아 투어에 나선다.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창극단 특별기획공연
'종류 in 광주'

일시 / 장소:
2025-07-12(토) 11:00, 13:00 / 북구 문화근린공원
2025-08-02(토) 13:00, 15:00 / 첨단 국립광주과학관
2025-08-03(일) 13:00, 15:00 / 첨단 국립광주과학관
문의 : 062-526-0363
*우천 시 야외공연은 취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GAC 전시지원 공모전시
조선아 개인전 : 시간을 담다

일시 : 2025-07-11(금)-2025-08-10(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